

더불어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	성명서		발신일 : 2025년 12월 3일 (수)
	공동위원장 백군기 · 김도균		
매수	1	별첨	없음
문의	유도진 대변인: 010-6260-7777 / 국민석 사무국장: 010-6314-1273		

12.3 내란 1년, 아직도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.

2025년 12월 3일은 12·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. 내란 수괴 윤석열과 일부 내란 동조 및 부역자들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지만, 내란에 동조하고 부역한 많은 핵심세력들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 사회 곳곳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.

국회가 설치한 내란 특검은 내란 및 외환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지금도 불철주야 수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특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, 내란 수괴를 동조하고 비호해 온 내란 동조 및 부역 세력은 여전히 정치의 중심에 남아 있습니다.

내란은 단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, 그 책임을 끝까지 묻지 못할 때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‘현재 진행형의 중대한 위협’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. 내란 수괴와 그에 동조·부역한 세력들이 정치적·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한, 내란은 아직 진행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.

특히, 12·3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끌어들이려 했다는 외환죄와 일반이적죄 관련 의혹은 그 성격상 가장 중대한 헌정 파괴 범죄이며 반역 행위입니다. 대한민국을 전쟁의 위협으로 내몰고, 국민의 생명을 자신들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 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이나 궤변으로도 덮을 수 없는 천인공노할 범죄입니다. 내란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, 책임자 전원에게 그에 합당한 엄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.

12·3 내란 1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는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입장을 전합니다. 내란과 외환의 책임이 완전히 규명되고, 내란 수괴를 비롯한 내란 동조 및 부역 세력이 정치적·역사적·법적으로 청산되는 날까지 우리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.

나아가 우리는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완수하고, 국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.

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일동